

제주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19 봄 제22호

드림 제주 21

DREAM JEJU 21



매화향기

앞마당의 매화나무 한 그루
마당에 서서 향기로운 삶을 본다
마른 가지의 새 생명을 위하여
몸부림친다

작은 고통과 인내가
봄이 오는 길목에 있다
아픔과 슬픔은
꽃을 피우기 위하여

첫사랑의 향기처럼
2월의 매화꽃 향기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봄의 메시지다.

강순매 작
2017년 문예사조 시 부문 등단
남원읍 하례리(83세)





CONTENTS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19 봄 제22호

- 02 사진과 시
 매화 향기
- 04 발간사
 평화와 자연의 가치,
 제주를 이끌어 갈 힘
- 06 3·1운동 100년, 제주100년
 3·1운동 100년,
 제주미래 100년의
 새로운 시작
- 10 제주를 찾는 이유
 데이터를 통해 보는
 제주관광의 매력
- 16 제주 속으로
 16 우리동네 이국
 20 전통시장을 찾아서
 24 포커스 제주
 28 가업을 잇는 제주의 맛집
- 30 제주어로 읽는 산문
 원기소의 추억
- 32 의회는 지금
 33 생활 속 조례
 34 의정 모니터
 36 현안 현장을 가다
 38 특별위원회 활동
 39 청탁 금지법 Q&A
 40 의정칼럼
- 44 소확행
 44 제주한라대학교 Maker Space
 46 건강을 지키자
 48 영구춘화
- 50 제주의 유산
 환해장성
- 52 열린의회 기고
 52 그 목욕탕은 지금 문화의
 굴뚝을 때고 있나요
 54 제주 맛 기행
- 56 음식 관련 제주어 속담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
- 58 제주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올드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식지 드림제주21에 실린 내용물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드림제주21"의 정기구독은 홈페이지(www.council.jeju.kr/의정활동/의회간행물/소식지 신청) 또는 전화(064-741-2285)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채꽃 피는 제주
노랑빛 봄으로 물들다.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발행일 2019년(봄호 통권 제22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팩스 064-741-2329
 편집인 오정훈 사무처장
 편집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미디어팀
 디자인 · 인쇄 모크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064-757-0523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묵묵히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이겨내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를 생각합니다.

평화와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생각합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평화와 자연의 가치

제주를 이끌어갈 힘

The value of Peace and nature, The power to lead Jeju

이제부터 100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화합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주를 생각합니다.

‘다시 기리는 4·3 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평화’ 4·3 희생자 추념일 제71주년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고 바로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내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꿈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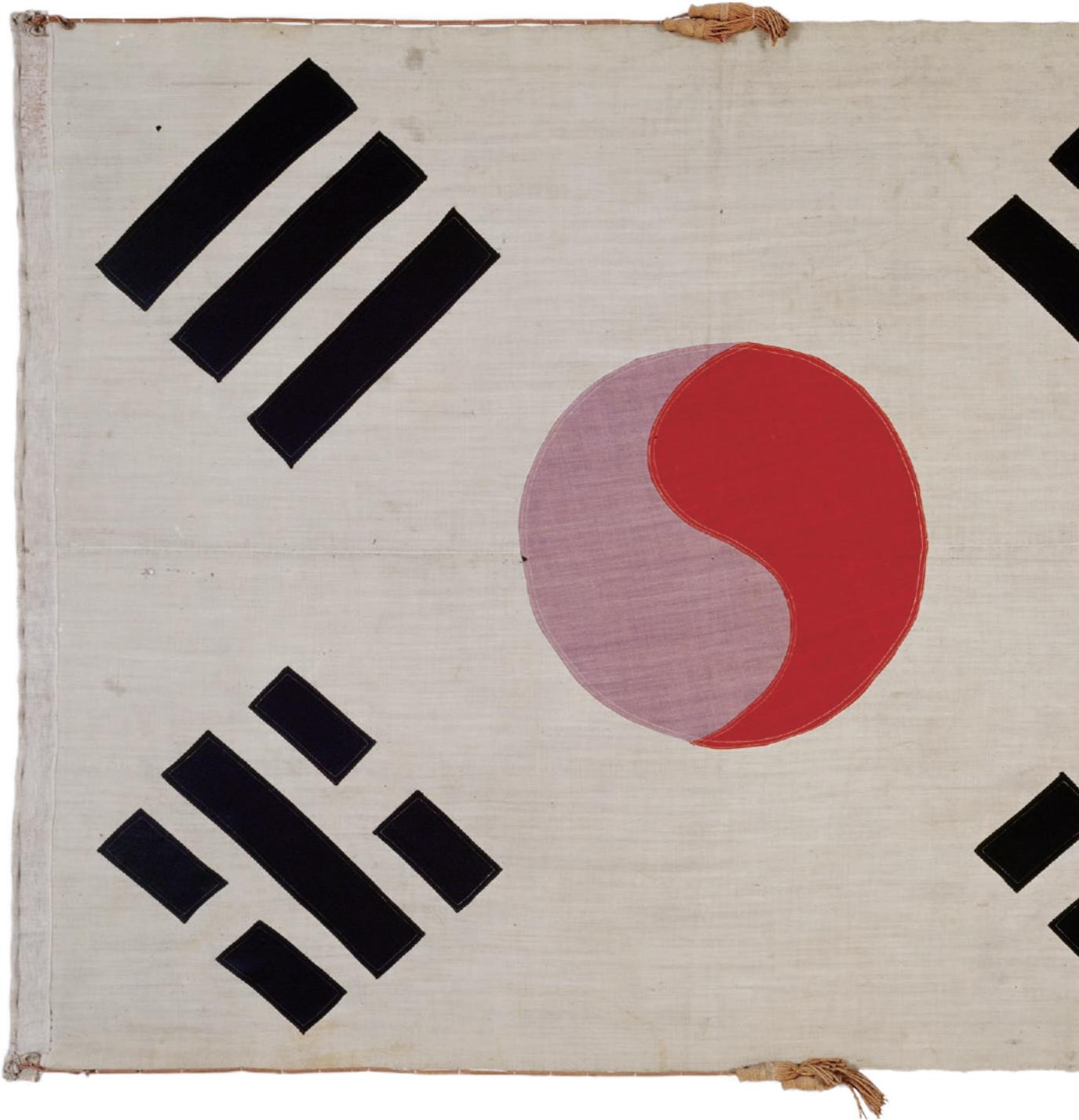
그리고 중요한 가치는 ‘자연’입니다.

지구 생태계는 그야말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문제에 직면해 그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자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주의 힘은 우리가 지켜내고 보존해야 할 자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화와 자연의 가치’가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 갈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 드림제주 21 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제주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실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소통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가로 189cm 세로 142cm 크기의 마직물에 4괘와 태극문양의 음방과 양방을 오려서 정교하게 박음질한 태극기다. 제작연대는 1923년으로 추정된다. 태극기 변천사 중에 특히 임시정부의 사용 태극기 자료와 함께 광복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3·1운동 100년, 제주미래 100년의 새로운 시작

글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배움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연은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해녀의 노래 중

2019년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3·1운동 발발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결연한 자주독립의 의지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으로 민족해방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전민적 운동이었다.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장 1조에 3·1운동의 정신을 담아 민주공화국을 천명하였다. 대한민국의 국호와 함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그러기에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존재와 가치를 있게 해준 민족의 뿌리이다.

특히 3·1운동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도 영향을 주어 중국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5·4운동, 인도에서는 비폭력 투쟁이 발생하였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은 세계 학자들로부터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동양과 세계평화에 기여한 세계 혁명사의 새로운 분기점을 이룩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한국현대사의 위기마다 3·1운동의 정신은 오탁하게 되살아나 계승되었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심지어는 지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지키기 위한 3·1운동의 정신은 곧 민족정신의 핵심이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지역의 항일운동은 1909년 제주외병을 시작으로 제주 3대 항일운동이라 할 수 있는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1919년 제주지역 3·1운동, 1932년 해녀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

1932년 해녀항일운동은 해녀들의 생존권 투쟁이면서 한국 여성항일운동을 대표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항일운동'이라고 언급, 제주해녀항일운동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 외 크고 작은 항일운동들이 도내 뿐만 아니라, 국내 및 일본 등지에서 일어났다. 1920년대 청년운동 단체인 제주청년회, 제주청년연합회, 신인회, 제주소년연맹회, 제주청년동맹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항일학생운동으로는 제주농업학교 동맹휴학과 졸업부당사정 항의 사건, 제주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 광주학생운동에의 제주학생 참여 등이 있었다.

특히 일본 오사카 지방은 제주인 국외항쟁의 주요 근거지였는데, 고순흠의 무정부주의 운동, 김문준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동아통항조합 자주운항운동 등을 통해 제주인의 자주성과 민족성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제 제주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주미래를 위한 100년의 새로운 시작과 의미를 되새겨 보자.

첫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의 지속적 계승이다. 해방후 3·1절 경축식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좌우익의 대립과

충돌, 특히 1947년 제주 3·1절 기념시위사건은 제주 4·3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던 아픈 역사가 있다. 세계 중심축의 아시아 이동에 따라 세계 평화의 중심에 제주가 놓여 있다. 이념의 대립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 자유와 평등, 평화와 번영의 진정한 제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둘째, 새로운 100년의 시작은 지난 100년의 역사에 대한 냉철한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일본에 거주하던 김시학, 서울에 거주하던 김시학의 장남 김장환, 조천에 거주하던 14인 동지회로 대표되는 운동의 핵심 주역들 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꼈던 민중들이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만세를 외치는 시위행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제주항일운동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 발굴·선양,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억의 공간' 발굴 및 조성, 오사카·동경 등 일본에서 활동한 항일제주인 발굴 및 조명, 역사의 전면에 나섰던 해녀를 비롯한 지난 100년의 제주여성사 재해석 등이 요구된다.

셋째, 3·1운동의 정신은 제주에서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과 궤를 같이 해 왔지만, 무엇보다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민족적인 3·1운동의 정신으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완성함으로써 이념 논쟁을 넘어 화합하고 제주공동체의 뿌리로 상생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국의 사과와 세계사에서 4·3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3·1운동의 정신은 민족은 하나라는 사실이다. 분단된 민족으로서 새로운 100년은 민족통일의 과업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주지역은 북한에 감귤보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주는 남북화해, 신한반도 평화협력과 경제협력공동체에 부합하는 남북교차관광, 한라산·백두산 생태 환경보존 사업, 에너지 평화협력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의 섬, 제주' 실천전략이기도 하다. 남북한 국민이 행복한 하나의 민족을 위한 남북협력에 제주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데이터를 통해 보는 제주관광의 매력



글 / **고선영**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장

제주관광을 지키는 핵심매력

제주 관광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2016년 관광객 1,500만명 시대를 열었다. 2017년 사드 이후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폭을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국내 경기의 하락, 연안여객선 중단, 항공좌석 수 감소, 국내 타 시도간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 감소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석과 토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대안마련에 앞서 한가지 의문점이 든다. 우리는 과연 제주의 핵심매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관광객들은 왜 제주를 찾는가?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제주를 찾게 하는

가? 등 내부인의 시선이 아닌 관광객의 눈으로 보는 제주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관광객의 시선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광객 관점에서 마케팅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좀더 객관적으로 제주관광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궁금증과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제주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시선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 제주관광이 갖는 매력들을 진단하고 제주관광의 나아갈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주국제공항과 한라산 전경



**내국인의 시선 -
힐링, 맛집 :
누구와 함께해도
즐거운 제주**

제주관광공사가 2018년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내국인은 '힐링'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의 이국적인 자연환경에서 한적한 주말 혹은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타지역 여행은 운전이 많이 해야 하고 준비할 것이 많은 반면, 제주여행은 '쉬러가는 여행'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예전에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패턴이었다면 최근에는 유행하는 이색카페, 맛집을 방문하여 편안히 쉬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SNS를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는 휴양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관광객

들은 제주가 어떤 동반자와 함께해도 잘 어울리는 여행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2018 제주관광에 대한 SNS와 언론 등에서 다룬 연관키워드 분석 결과를 보면, SNS에서는 '먹다', '맛집', '맛있다', '카페'와 같은 먹거리에 대한 검색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 외 '가족', '친구', '아이'와 같은 동반자에 대한 검색빈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언론에서는 관광콘텐츠에 대한 기사와 함께 '중국', '경찰', '사드' 등 도내에서 일어난 관광관련 사회이슈를 다루는 경향성을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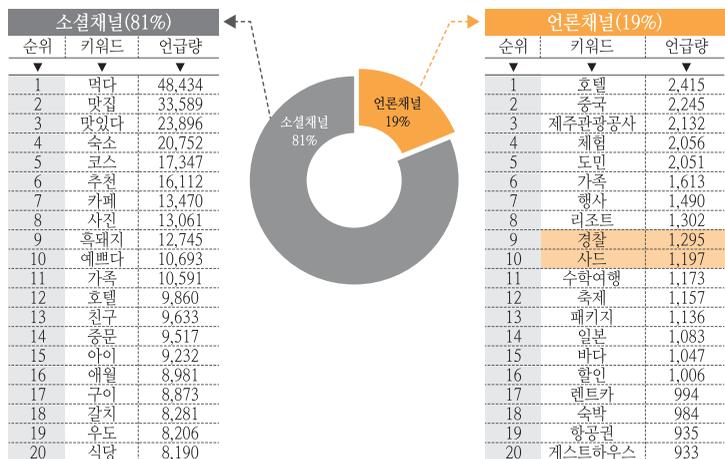
제주돌이 소금을 만들고,
그 소금이 바닷물이 되어
제주가가 되었다.

- 1 트렌디한 카페 음료
- 2 제주시에 소재한 카페

워드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휴양중심, 맛집중심의 관광패턴은 실제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관광공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카드 데이터를 통한 내국인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까지만 해도 관광객들은 연동, 색달동 등 도내 주요 관광거점 중심에서만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이 증가하는 주요지역이 조천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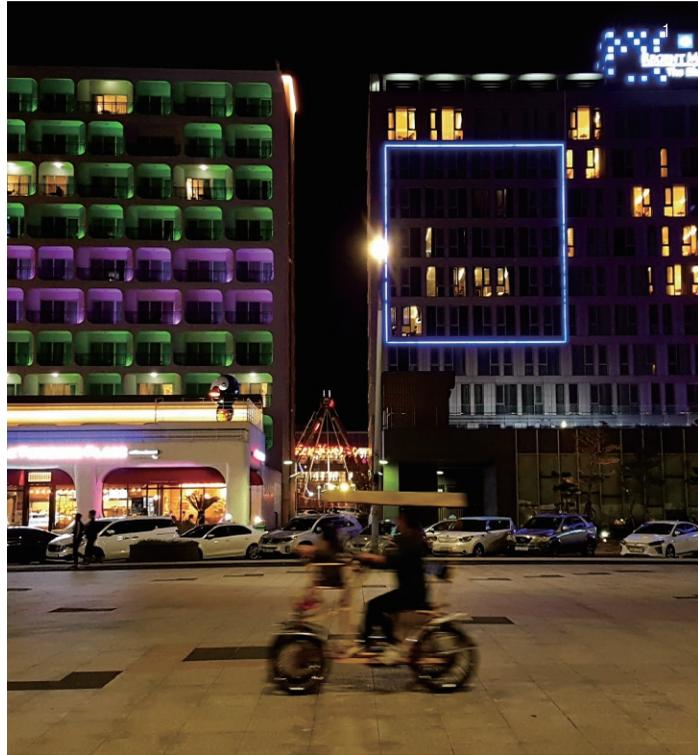
매체별 언급비율



애월읍, 한림읍, 성산읍, 표선면 등 읍면지역의 음식점업, 소매업에서 두드러진 매출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경관이 우수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카페, 이색관광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대되고 이러한 수요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들이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도내 관광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기존 관광지, 여행사, 호텔 등 핵심 업종 중심,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관광산업이 제주도 전역, 다양한 업종, 마을주민과 밀착된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국인의 시선 -
한류(韓流),
아름다운 자연,
우수한 인프라**

외국인의 경우 '한류 콘텐츠'로 제주를 알게 되었고 '여행경비' 등의 경제적 이점이 강하고 '방송촬영지' 방문과 '자연경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주를 방문여행지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콘텐츠 촬영장소 또는 관련 장소 방문에 대한 기대가 높고 아름다운 바다, 자연경관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아름다운 바다색에 대한 인상이 강하였다. 최근에는 '여행인프라'의 편의·편리성과 이색카페, 맛집 등의 '트렌디함'으로 매력있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리조트나 숙소의 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 인프라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제주를 경험하기 전보다 관광활동을 경험하면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재방문의향 또는 타인 추천의지 등 제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행전 인지단계에서는 한국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서 인식되었다면, 준비단계에서는 자연경관, 특히 바다, 세계 유산 등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경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관심도가 급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실제 제주를 관광하는 단계에서는 제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특히 바다를 가장 큰 제주의 경쟁콘텐츠로 인식하는 부분이 컸고 그 외 사진찍기 좋은 장소가 많고 일상과 다른 여유를 느끼게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제주를 여행목적지로 결정하고 난 이후부터 매력도가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지단계부터 제주여행의 기대감을 높일수 있는 홍보마케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1 제주시 탐동 광장
- 2 가파도 올레길

**선택과 집중 :
보존,
밀레니얼 세대**

지금까지 데이터를 통해 본 제주의 매력은 '휴양, '힐링', '맛집', '자연'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제주의 관광전략은 우선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더 부각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관광객들이 제주의 매력요소를 '우수한 자연경관에서 쉬어가는 여행'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우수한 자연자원에 대한 '유지·관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고객 경험 관리 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세계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

고 있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한 세대)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소비특성, 즉 인터넷, 모바일 등 IT 기기에 친숙하고 소유보다 경험, 체험을 중시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과 모험을 갈구하는 등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및 체험콘텐츠 강화 등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 그 봄이 신화가 시각되는 마을



한림읍 귀덕1리

글 · 사진 / 모크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영등할망 청치매 입영 들어오민 날 총곡,
우장 썩 오민 날 우치곡,
무지게 입영 오민 총곡, 뽕쓸 보름 분다.**

한림읍 초입에 있는 귀덕1리는 제주의 수많은 신화 가운데서 제주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관장하던 영등신의 신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해마다 2월 초하루에 열리고 있는 영등신맞이 환영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올해도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카메라를 챙겨 나섰다.

귀덕1리 해안가에 있는 복덕개포구로 해마다 2월 초하루에 들어오는 영등신을 맞이하는 환영제는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함께 어우러져 치루어지고 있었다. 잘 가꿔진 영등할망신화공원에서 귀덕1, 2, 3리 마을 부녀회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제주의 문화유산을 유쾌하고 즐거운 축제로 승화시켜 제주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행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interview

영등신맛이 환영제는 마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내며 살아왔던 제주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월 초하루에 우리마을로 들어와서 제주 전역을 돌며 풍어와 풍작의 씨를 뿌리는 영등할망의 노고를 위로하고 기원하는 풍습이었구요.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할 제주도와 귀덕리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였고 올 봄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마을특화사업에 양채류를 특작물로 하여 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님께서 생각하는 마을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덕리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드리는게 가장 큰 계획입니다. 급격한 발전보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소통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귀덕리의 마을 사업은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선 2013년도 부터 귀덕리 해안가에 조성된 영등할망신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월 초하루에 우리 마을 복덕개 포구로 들어오시는 영등할망을 맞이하는 환영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우리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데 소명의식도 있구요(웃음). 이 외에도 귀덕리의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신축하



- 1 영등머느리 석상
- 2 귀덕리 해안가에 있는 거북등대
- 3 영등신맛이 굿
- 4 한수풀 해녀 합창단 공연
- 5 영등할망신화공원
- 6 축제를 즐기는 마을 주민 장혜금 씨
- 7 귀덕1리 이남근 이장





직접 재배한 채소류를 파는 어르신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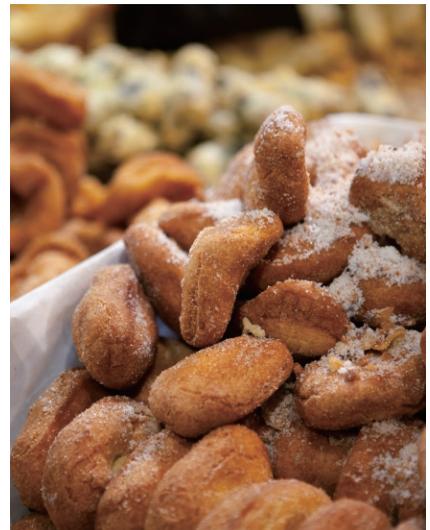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글 · 사진 / 모크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닷새에 한번 사람이 모이고 정이 모이는 곳,
제주 사람들의 삶이 오롯이 담겨 있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으로 찾아가 본다.**

만병통치약 뽕튀기 옛날과자

필자의 학생 시절, 사라봉 근처 공터에서 장이 열렸던 오일시장은 비 오는 날이면 길도 질퍽거리다 다니기도 힘들었고 규모도 지금의 시장보다 훨씬 작았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들고 가더라도 언제나 싸고 푸짐한 음식과 생활용품 등을 살 수 있어서 종종 친구들과 어울려 같이 가기도 했다. 시장 초입에서 정체 모를 만병통치약을 팔았던 약장수의 품바 공연을 한참 동안 구경하다 보면 슬슬 배가 고파져 친구들과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면서 뽕튀기, 옛날과자 같은 간식거리를 한 아름 사 오기도 했던 기



추억의 간식 도넛

억을 떠올리며 취재를 나섰다. 도착한 시간이 마침 점심시간 즈음이라 그런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장 풍경이 반가웠다. 새롭게 지어진 주차빌딩으로 설 새 없이 차가 드나들었고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화훼 가게에서부터 나오는 봄의 꽃내음이 기분 좋게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꽃향기가 그윽한 시장



제주 전통 농기구를 만드는 오일장 불미장이 김태부 씨

저번에도 오곡, 이번에도 와시난 하영 줍싸 양

시장 초입부터 활기찬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흥정 소리가 요란했다.

유독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떡볶이와 도넛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다 망치질 소리가 들려 따라가 보니 오일시장에서 50년 넘게 제주 전통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을 하고 계신다는 철물점에서 한참을 구경하게 되었다. 제주에서는 호미라 부르는 낫을 만들고 계셨는데 묵묵히 두드리는 망치질에 금세 낫 한 자루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장인의 포스랄까. 무심한 듯하면서도 세심함이 깃들여 있는 만듦새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이유는 무얼까. 장터 한편에서 뜻하지 않게 보게 된 그분은 제주의 마이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활용품들을 파는 가게들을 지나다 보니 싱싱한 어류와 해산물을 파는 수산시장에는 물 좋은 생선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흥정의 줄다리기를 하시는 상인 분들의 기분



자연산 보양식 몸국(모자반국)

좋은 입담을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옥돔 한 꾸러미를 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식사시간이 훨씬 지나 있어서 상인 분들이 알려주신 몸국이 맛있다는 식당으로 들어섰다. 음식이 식기 전에 얼른 사진을 찍고 국물 한 숟가락을 맛보니 과연 겉쪽하고 배지근한 몸국 특유의 식감과 맛이 살아 있었다. 폭 고아 낸 돼지 육수와 몸이 어떻게 이런 조화로운 맛을 낼 수 있는지.. 처음 먹어보는 건 아니지만 먹을수록 궁금해지는 맛이다. 개인적으로 인생 몸국을 만난 기분이었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나만의 맛집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 상인회장인 김영철 회장을 만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직

접 재배하신 농작물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자릿세나 회비 등을 받지 않고 자리를 마련해드려 판매하실 수 있게 만든 할머니 장터 프로그램으로 나눔의 실천을 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시장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를 위한 상인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시장의 모습에서 무언지 모를 감사함을 느끼며 취재를 마쳤다.

개장 일시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5일 간격)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수산시장



제주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

김혜림

Kim Hae Rim

글 / 모크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사진 / 제주도립무용단, 김혜림

**제주의 춤을
브랜드화 시켜
세계적인 공연
콘텐츠로**

2018년 9월에 제주도립무용단으로 위촉된 김혜림 상임안무자는 국립무용단, 인천아시아게임 개회식 안무,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안무 총감독을 역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무용가이다.

2018년 12월에 공연되었던 '자청비' 정기공연은 제주도립무용단으로 부임 후 2개월 남짓한 짧은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관객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사실 제주에 오기 전부터 줄곧 제주에 대한 콘텐츠를 생각해 왔다고 한다. 중국의 장이머우 감독이 연출한 인상 시리즈 공연처럼 작품을 통해 중국의 각 지역을 브랜드화하

고 수많은 관객을 끌어들이 것처럼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실제 무대 배경으로, 또 그 지역의 설화를 소재로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용수로 직접 출연하여 함께 공연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한다. 빼어난 자연환경과 수많은 설화가 존재하는 제주도가 그런 작품을 만들기에 우리나라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고 실현만 된다면 예술, 문화,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제주도의 가치를 재창조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연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듯 무용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가득한 김혜림 상임안무자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 날에도 연습실과 사무실을 분주히 오가며 작품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자청비 공연
주위의 옛날 도시



interview



김혜림 상임안무자

**어머니,
제주바다,
운명.**

**제주도에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지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을 치르면서 쉼 없이 달려왔던 터라 좀 지쳐 있었어요. 잠시 쉼표를 가져야 해서 제주도로 왔었는데 제주도 립무용단은 요즘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우연히 상임안무자 공고를 보게 되었죠. 서류를 넣고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오디션을 보고 그날 서울로 돌아가고 있는 버스 안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주바다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바다를 보러 온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제주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어떤 운명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 자청비 공연

제주도립무용단과 함께 어떤 작품세계를 보여줄 계획이신지요.

우선 한국무용의 전통성이 살아있는 무용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 위에 퓨전이 아닌 융합적인 요소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를 시도하고 4차 산업의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전혀 새로운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각 장르의 개별적인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요소가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한국무용이라는 큰 틀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4월에 공연하는 정기공연도 '한국의 민속무용'이라는 콘셉트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구요. 우리의 전통무용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1월에 제주에 의한, 제주를 위한 콘셉트로 제주도립무용단의 브랜드화 된 공연을 야심차게(웃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무용단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위해 저와 단원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주도립무용단 제52회 정기공연

【찬란】

우리의 유구한 역사에서 찬란하게 보존되며 맥을 잇고 있는 '한국의 민속무용'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무대

일시 : 2019. 4. 26(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SINCE 1970

서귀포 흑돼지 명가

(구. 해운대 가든)

글 · 사진 / 모크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신선한 고기로만
내어오는 생갈비를
제주에서 처음
시작했던 곳**

제주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을 손꼽아보라 하면 단연 신선한 회와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 흑돼지를 비롯한 제주 돼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어느 곳에 내어 놓아도 뒤지지 않는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다. 집에서 프라이팬에 간단하게 구워 먹기도 하고 잔칫집에서 푸짐하게 내어주던 수육, 그리고 저녁에 술 한 잔과 늘 곁들여 먹었던 제주 돼지고기의 맛은 지금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다.

서귀포 올레 7코스에 있는 서귀포 흑돼지 명가는 그런 제주 돼지의 맛을 오랜시간 지켜내고 있는 제주도에서 몇 안 되는 대물림 맛집이다.



올해로 80이 되신 어머니의 뒤를 이어 80년대 중반부터 식당을 운영 해온 이곳 사장님은 어릴 때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면서 자전거로 고기를 실어 날랐던 일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만 해도 전문적인 냉장유통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이라 신선한 고기를 사 와서 양념갈비로만 판매하는 게 손님들에게 늘 아쉬워 하셨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그날 사 온 돼지갈비를 양념에 재우지 않고 생갈비로 내놓았던 게 시초가 되었고 이렇게 해운대 가든에서 최초로 돼지 생갈비라는 메뉴가 생겨났다고 한다.

식당으로 들어서면 꽤 넓은 홀이 있고 야외 테라스에서도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곳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서귀포 바다의 풍경이 기가 막히다. 문섬과 범섬이 보이는 풍경에 저녁이 되면 조업을 나간 배들의 반짝거리는 밤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 운치가 더할 나위 없다. 가끔 음악을 취미로 하시는 사장님의 라이브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니 여유로운 식사와 아름다운 풍광,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서귀포의 명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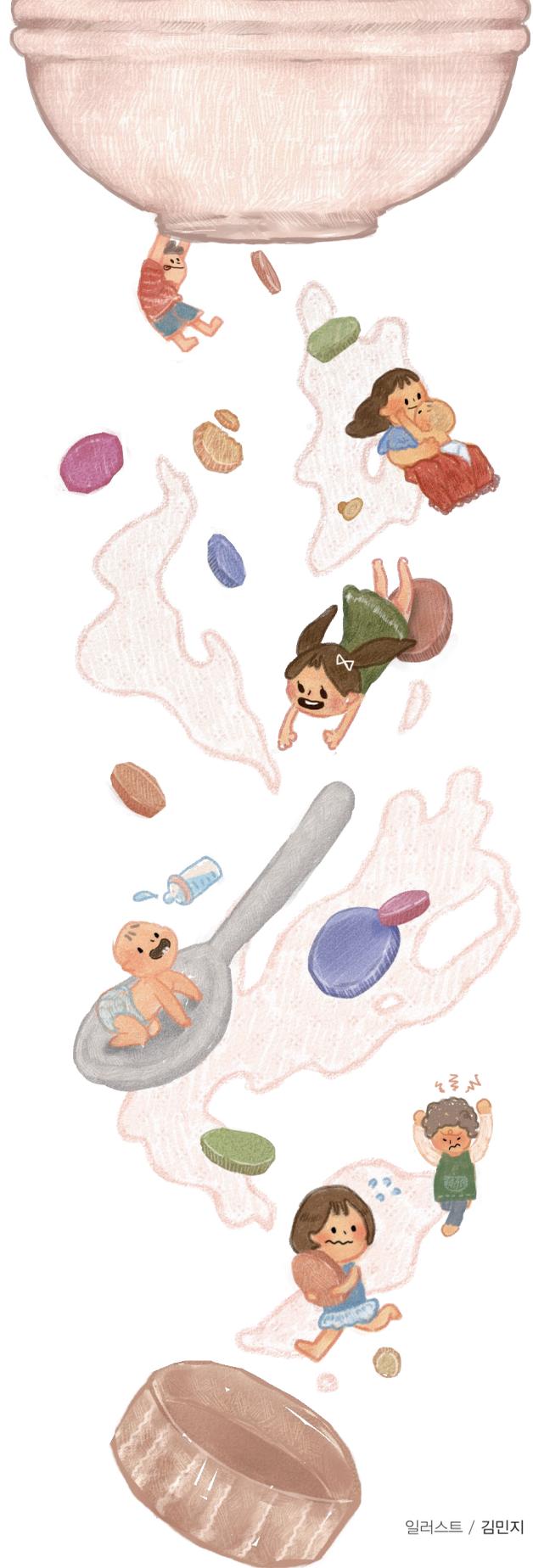
- 1 한상차림
- 2 흑태지 구이
- 3 입구
- 4 대물림 맛집 명판
- 5 2대째 운영중인 사장님

원기소의 추억

글 / 김신자 시인, 제주어보전회 연구위원

아프리카의 어떤 무실에 진진흔 강이 흐나 싶젠 합니다. 강이 막 짚엉 그자락 오물락이 빠지진 안후주마는 물쌀이 잘도 썰여노난 사름덜은 그 강을 건느쟁 흐민 벤벤흔 돌멩일 흐나쑈 짚어정 건넌텐마쑈. 그건 무산고흐민 거친 물쌀에 떠누려가지 안후젠 흐는거렌예. 나도 반세기 넘게 살아가단보난 하간 일덜을 하영 짚어가명 사는디 양 짚어진 삶의 무게가 넘어 베게 느껴지민 ‘아, 이건 크싱크싱흔 강물에 쓸리지 말게흐는 고마운 돌멩이 때문이구나게’ 흐멍 느랑 플라스 생각으로 살아값수다. 멋이든 플라스 무음을 그진 사름이 멘역성도 강후영 뺑도 잘 걸리지 안후텐마쑈. 경후 말을 푼 아덜신더레 죽장 곱아주당봐도 요새 아이덜은 춤음이 부작후연산지 쉽게 설러불곡 기자 쉬운 질만 좇아가젠덜후여양. 나 두릴 적인 흐꼬만 흐 것에도 펀드그랑후게 살아신디 요새 아이덜은 흐강후멍 살단보난 시상 에려운 줄 잘 몰라마쑈.

옛날 우리집 바로 부튼 요집이 나광 막 가근흔 벧 숙자가 이섯수다. 숙자네 어멍은 위로 쫓쫓러니 푼만 나단 말짜엔 늑둥이로 귀흔 아덜을 나셔마쑈. 경후난산지 아덜을 신춷단지 모시듯 잘도 귀하게 키웠수다게. 숙자어멍이 물에 들레 가불민 누이덜이 그 남동싱을 보는 거라양. 경후난 누이덜 가심팍에 슬리 부쳐안아듬서 등도



일러스트 / 김민지

독독 두드려주곡, 머리도 쓸쓸 누리슬어주곡, “우리 할
 마님 손지 아프지 말앙 물웨추룩 자게자게 크게 햏여
 줌서.” 아기 울어가민 이영 할망신디 배운거 입담도 햏
 명 달래는 걸 비롱이 웨리던 난양, 그 모십이 잘도 불루
 완 햏여낫수다. 나신던 동싱이 웃이난마썸. 경햏난 속자
 가 아기 볼 때 나도 햏디 주꿏더레 앗앙 아기구덕도 햏
 글명 놀레도 불르곡 아기어명 승내도 내여나십주. 아기
 가 햏썸 커가난 요새말로 이유식을 햏기 시작햏였수다.
 요새사 햏간 이유식덜이 오죽 햏우꽈? 일텡기명 딱 주
 루진 어명덜을 위햏영 돈만 주민 착착 멘들앙 나오는 유
 기농 이유식덜토 햏마썸. 경햏한민 집이서 햏간 과일도
 골앙 맥이곡 쉐궤기죽, 누물죽, 잣죽 곁은 음식덜을 멘
 들안도 맥이난 영양도 오죽 좋으쿠과양. 옛날엔 어느 주
 르에 그런 음식을 봐져시쿠가게. 이유식
 이렏햏민 기차 밥을 입안에서 오물오물
 씹영 막 죽뉘게 밀락햏여지민 아기신더
 레 움막 맥이는 거라마썸. 계난 속자
 가 그걸 햏는거 받 나도 막 햏
 고정햏연 그 염이 부편 밥
 햏 숏구락 움짜움짜 입소
 곱에 낫 씹언 죽이 뉘난
 그 아기신더레 손꾸락
 으로 맥이난 움막햏게
 받아먹는 거 아니우꽈?
 햏이고, 아궏웁기가. 요지
 금 어디 강 경햏여봅서.
 욱 처들을 거우다. 머 위
 생햏학적으론 생햏각도 못햏
 일입주게. 어햏 소망 인
 날이민 속자어명이 사뉘
 간 건뺑을 입에 낫 막 씹
 어궏정 그것도 맥이는 책
 햏명 받은 나가 먹곡 햏
 여나십주.



경햏디, 햏제 속자네 집이 또시 간 보난 여궏궏지 봐보
 도못햏 신식문물이 햏도글락햏 통에 담아젼 신거라마
 썸. 난 녏이 궁궏햏연 속자신디 들어보난 지뉘 남동싱
 먹는거렏햏명 손도 당첸 대지말렏 햏디다게. 게도 나가
 막 주추완 들은 말이 원기소! 먹으민 햏간 햏 치레도 안
 햏고 지레도 썸썸 큰햏햏명 막 빛난 건디 지네 어명이
 큰 무음 먹언 사왓젠마썸. 계난 난 내음살이라도 햏썸
 말아보게햏명 자궏 썸영이햏여가난 속자가 원기소 뚜
 궏일 올라궏 내음살이 궏햏게 다가오느디 지금도 그 원
 기소 내음살을 이주볼 수가 웃어마썸. 약 내음살 비썸
 햏명도 막 햏궏는거라양. 경햏난 나가양 막 죽을락살락
 수정을 햏였수다. “햏이고, 속자야 원기소 햏나만 먹어
 보게.” “게민 누게신디 궏지 말라이. 누궏 나만 햏나궏
 먹영 뚜궏이 햏 뒤어볼게.” 경 입을 맞춘
 햏제 원기소 햏 방울을 입더레 노난 녏
 이 고소햏고 체얏으로 맛보는 신식 영
 양소라노난 햏나만 맛봐질 말이우꽈.
 더 먹게게, 햏명 먹단보난 원기소
 통이 오궏 반착뉘어볼언마썸.
 게도 그날 집이오난, 햏궏궏
 이 기분도 좋아지고 심도 나
 고 지레도 커지는 거 앗음
 디다. 경햏디 그 놀 주냐
 이 물에 들레 갓단 온 속자
 어명이 속자신더레 악궏햏
 는 소리가 어마궏궏궏 들립
 디다. 우리집더레 어햏 대
 동햏영 오카부뉘 잘도 주들
 야간다 주들아온다햏명 줌
 을 못자나십주. 지금도 몸
 이 느랏햏여지고 햏사리웃
 일 햏양, 두릴 때 그 원기소
 가느랏 튼내어져마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의회는 지금

생활 속 조례

의정 모니터

현안 현장을 가다

특별위원회 활동

청탁금지법 Q&A

의정 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국민과함께
하겠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

성평등한 정치 실현,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성평등한 정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제주도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성평등포럼'(대표 김경미)은 3월 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와 함께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대표를 역임한 남인순 국회

의원이 '성평등한 정치란?'을 주제의 특강을 통해 성평등 정책 개발과 성평등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강이 끝나고 나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평등한 의회를 조성하기 위한 가칭 '제주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의회 차원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다. 가칭 '제주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도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평등한 의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인지 교육, 정책결정과정에 의 위원회 성별 구성비율, 성폭력·성매매 범죄 예방교육,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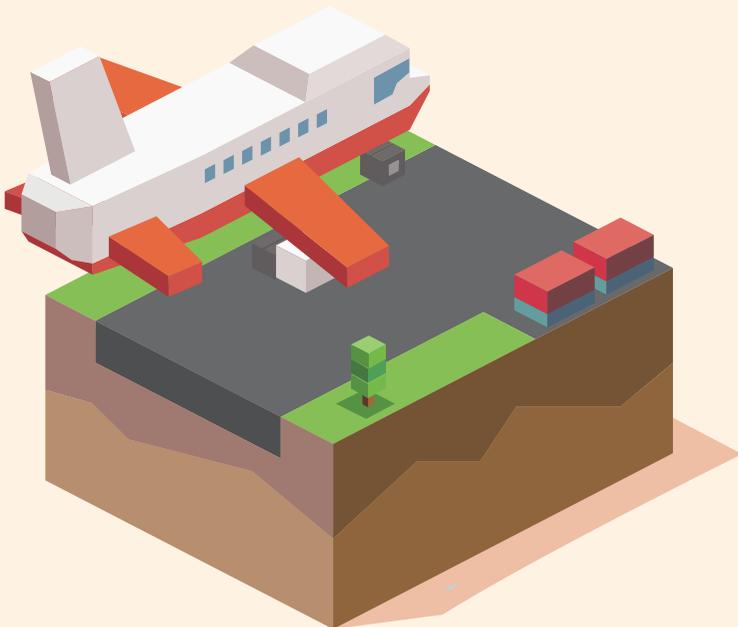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시행시기가 2022년으로 유예됐다. 제36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다시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 시 동(洞) 지역에서 운영 중인 차고지증명제

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현재 제외 대상인 소형차와, 전기자동차 등 전 차종을 차고지 증명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형차와 경차는 시행시기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당초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km 이내로 완화됐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 동지역에 한해 대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7년부터는 중형 승용차를 포함해 시행돼 왔다.

제2공항
갈등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도민 삶과 직결된 국책사업, 중재 노력 절실”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가 주최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 26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도민의 의견을 듣고, 과연 갈등의 해소 방안은 없는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담당한 아주대 산학협력단 측과 박찬식 충북대 교수,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측의 주제발표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로 이뤄졌다.

아주대 측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 연구진이 기초자료와 관련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했다”며 “또 주로 제기된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평가, 정석비행장 기상평가, 신도후보지 최적화 의혹 등 문제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주로 제기된 문제사항에 대해 검토내

용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며 “사전타당성 보고서 작성 시 전문가적 판단의 근거, 중간검토 과정 등이 편집과정에서 누락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불러일으킨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찬식 교수는 제2공항과 관련한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눴다. 제주에 과연 공항확충이 필요한지와 제2공항 입지 선정평가와 주민 수용 등에 있어서 타당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등이다.

박 교수는 공항 필요성에 대해 공항이 들어설 경우 땅값이 올라가고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주대 측이 “보고서 누락 이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한 신도2 후보지와 관련,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시됐던 “위치를 옮기지 않았으면 최종후보가 바뀌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강영진 한양대 갈등연구소장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재가동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 소장은 “공항 시설의 경우는 다종의 편의를

증진시키면서도 그 시설이 입지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양면성이 있다”며 “아무리 대다수가 편익을 누리는 시설이라도 일방적으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고 불공정하고 부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그러면서 “양면적 공익시설의 추진에 있어 4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그 4대 원칙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 입지선정 공정성,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보 성산을 반대대책위원장 역시 “검토위를 반드시 재개해서 발굴된 쟁점에 대해 도민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성 및 타당성
입지선정 공정성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

1, 2 지난 2월에 열렸던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의정활동에
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가 도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도민과 함께하기 위한 특별한 행보를 시작했다.**

제주도의회는 도내 핫한 현안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지역별·분야별·계층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촘촘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현안·현장을 가다!」 현장탐방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첫 현장탐방 일정으로 지난 11월 24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감귤원(농가주 양남호)을 방문하여, 감귤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농가주 및 감귤수확 인력들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도의회와 농가, 농협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농가주 양남호(남, 76세, 오라동)는 “감귤수확 일손이 많이 모자라 걱정이었었는데 오늘 도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안·현장을 가다!」 두 번째 행보로 '김장나누기 봉사활동
현장'을 찾았다.**

김태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은 12월 11일,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에 동참하여 김장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 촘촘한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지회장 김영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8년째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군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350여명이 참여하여 3만 6123kg의 사랑의 김치를 담근 뒤, 제주시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3600여명에게 전달하고 추운 겨울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현안 · 현장을 가다!」 2019년 첫 행보로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었다.

김태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은 1월 7일, 2019년 새해 민생경제가 활력이 넘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제주 최대 재래시장인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오일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시장을 찾은 도민·관광객·상인들과 새해 희망의 눈높이를 맞췄다.

또한, 도의회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불편사항·건의사항 등 더 많은 고객이 찾는 오일장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석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속에 민생경제가 어려웠고, 2019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제주지역 체감경기도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온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러스트 / 이다영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대규모 개발사업 특혜 있었나 제주도의회, 5곳 현장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는 3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행조특위는 11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JDC가 조성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3곳을 돌아봤다. 12일에도 제주신화역사공원과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방문해 조성 과정과 현재 개발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행조특위는 앞서 지난 3월 7일 제2차 간담회에서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동영상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행조특위는 제주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JDC가 추진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장에서 최근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해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는 계기가 됐다.

행조특위는 이들 사업장을 포함해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행정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혜택과 그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 등이다.

청탁 금지법 Q & A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임원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Q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
-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 공직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민주주의와 학생인권을 이야기하자

글 /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학생들 스스로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있는
발걸음의 시작**

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교육자치의 선도모델이 된 지 어언 13년 째 되고 있지만, 교육자치의 완성 모델에 분명히 '학교자치'의 모형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자치에 대한 논의조차도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즉,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는 매우 미진하다. 의무는



있고 권리가 없는 학생회로서는 언감생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도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학교의 의사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규정상 학생들도 학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거의 '어른들의 전유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민주주의와 학생인권'을 이야기할 시점에 왔다.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의 장이 아닌 통제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이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법이다. 스쿨미투라는 단어가 생긴 지 1년이 되고 있고, 학내 성폭

력이 권력형 성폭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에 노출되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을 뿐, 학생 인권보호 대책 하나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

최근 10명 중 3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국내 이주아동은 불안정한 체류 자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특수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은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심지어 여학생이 바지교복을 입으려면 바지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명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학교의 규율과 규칙이 촘촘히 규정되어 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학생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결코 없고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되는 보편타당한 권리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얘기하면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주장은 3,40년 전의 인식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학교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 급변하는 학습환경에 맞게 부단한 자기 계발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성장을 도모하면서 스스로 높여나가는 것이 교권이다. 즉, 학생인권과 교권은 분리되어 이해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권리 보장으로 다른 한 쪽의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기본권인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교사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한이 교권이며, 학생이 배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부여되는 수업권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학생 활동을 소개한다.

도내 고교생들로 구성된 제주 학생인권조례TF에서는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를 알리고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있는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본다.

치마입은 여학생을 위해 책상 앞가리개를 설치하는 것, 입과 손이 작은 병설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에게 적정 크기의 수저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교육 주체로서의 '학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도정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글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 대형화가 아닌
까다로운 조건과 방향성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 도정질의를 통해 이미 언급한 사안이었다. 카지노 사업자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형화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신규허가와 같은 주요 절차가 아닌 기존 사업장 매입을 통한 이전 변경의 편법적 방법으로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은 카지노 사업이 사행산업으로써 행위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법를 취지를 볼 때 바람직한 대형화 방법



론으로 볼 수 없다.

카지노 대형화에 찬성하는 분들이 싱가포르나 일본사례를 말하고 있다. 만약 이런 형태로 대형화를 추진한다면 결코 대형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두 나라 모두 카지노 대형화를 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제도를 선행하였으며, 수익의 지역환원이나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 대형화가 아닌 까다로운 조건 하에 대형화라는 점에서 우리와 확연히 다른 것이다. 싱가포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개 사업장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사업자 및 경영형태에 있어 엄밀한 투

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처럼 돈으로 사업자를 사고 특별한 정책적 방향 없이 대형화하는 형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 역시 카지노 수익의 30%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 등 다양한 수익환원 장치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카지노에 대한 제한적인 대형화 및 합법화를 이들은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재정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에게 독점적 공급능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사업수익의 안정화도 마련하는 그런 계획된 제도 하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싱가포르나 일본과 비교될만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며,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정확한 도정의 정책도 없는 상태다. 만약 이런 상태로 간다면 도내 8개 카지노 모두가 대형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카지노는 대한민국 전체 카지노 중 절반에 가까운 8개가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카지노를 금지해야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매몰해야 한다는 논의는 맞지 않다. 그러나 8개 카지노가 허용된 것은 그 당시 국가적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허기해 준 일반 사업권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대형화의 논의는 명확한 정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예전 원희룡 지사는 도내 대형카지노에 대해 2~3개가 적정하다는 의견과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말했다. 만약 이것이 일종의 방향이라면 이 정책적 방향에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형태에서 공모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적인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카지노 수익의 지역환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고민이 아직은 없는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역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한 국제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미래에 대한 계획적 예측이 없는 변경허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제주도정의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제주한라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자파리 창의공작소



글 / 모크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사진 / 자파리창의공작소, 모크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파리 해보자!

자파리 :
여러가지 물건들을 아주 심하게 어지럽히면서 노는 모양을 이르는 말, 또는 손장난을 뜻하는 제주어

어렸을 때 TV에서 맥가이버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악당들을 제압하고 클립과 테이프로 기상천외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물리학자나 과학자가 돼야겠다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다. 결국엔 전혀 다른 진로를 걷게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은 어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할 땐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딱히 손재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문적인 장비나 지식도 전무한 터라 늘 생각만으로 그치는 현실이 아닐까. 필자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창작활동 지원센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중 제주한라대학교에 있다는 자파리창의공작소로 찾아가 보았다.



목공 테이블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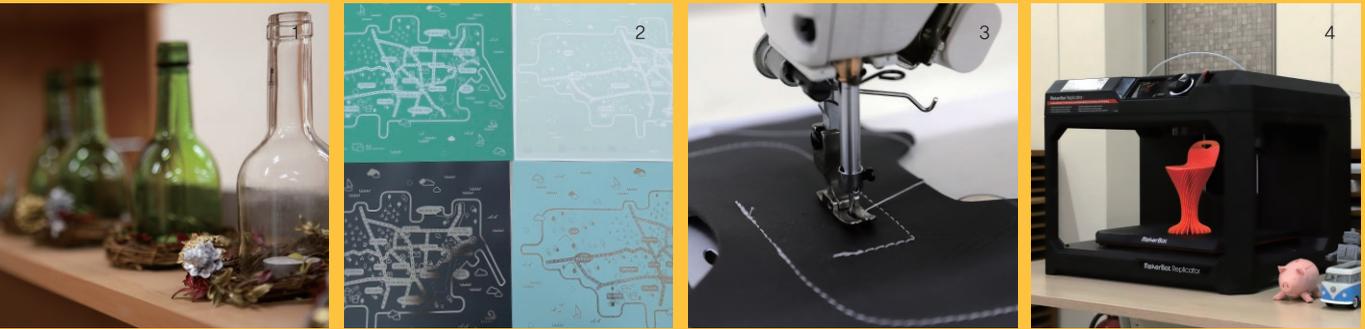
금박기



전사 프레스기



업사이클링 캔들홀더 만들기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자파리 공작소는 제주한라대학교 직업훈련센터 내에 있다. 도내에는 현재 5곳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지만 이곳 자파리창의공작소는 제주 생활 밀착형 창작 활동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수 종이 인쇄 및 후가공, 3D 프린팅, 원단 프린팅, 목재 소품 제작, 제주 특산품인 말가죽을 이용한 가죽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 상상하는 대로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전, 제품을 어떤 소재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자. 상주하는 직원과 담당 교수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어 최종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독일 출신의 심리학자인 예리히 프롬이 말했던 '창작은 인간 본연의 즐거움'이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해 줄 제주한라대학교 자파리창의공작소로 즐거운 창작 활동을 하러 서둘러 가보자.

제주한라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제주특화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 1 와인병을 재활용한 캔들 홀더
- 2 박 화이트 인쇄가 가능한 디지털 인쇄 시스템
- 3 말가죽을 이용한 가죽 제품 가공
- 4 3D프린터로 제작한 의자 모형



운영 시간 :
 주중 10:00~22:00(13:00~14:00 / 17:00~19:00 미운영)
 주말 09:00~17:00(12:00~13:00 미운영)
 *주말/야간 예약제 운영
운영 비용 : 1시간 3,000원(재료비 별도)
문의 : 064-741-6748 / www.makeall.com

봄철 소아의 감기

글 / 김성은 김성은한의원 원장

초기 감기 땀 따뜻한 물로 손발과 얼굴만 닦는 것이 좋다. 그 다음 휴식이 중요하다.

요즘 같은 봄철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한 소아들이 걸리기 쉬운 감기는 초기관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초기 증상이 보일 경우 땀을 내고, 먹거리를 부드러운 유동식으로 바꿔 소화를 돕고, 스스로 앓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기는 외부의 기운에 감한다 해서 감기라 부르며, 한방에선 외기에 썩은다 해서 감모(感冒)라고 부른다. 감기는 모든 병의 장(百病之長)이다. 면역의 시험장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보통 감기는 밖으로부터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니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감기라는 증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감기를 제대로 잘 앓게 되면 오히려 면역이 증강되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어 몸이 도리어 건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통 감기에 걸리게 되면 열이 난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열은 병균이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몸속의 나쁜 균이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무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열이 올랐다고



놀라서 금방 해열제를 먹여 열을 떨어뜨리게 되면 면역 활동은 저하되고 그로 인해 병원 및 노폐물이 잘 제거되지 못해서 또다시 열이 오르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감기를 일주일 이상 앓는다면 그것은 감기가 아니고 인체면역의 허증인 것이다.

아이들 초기 감기는 조금 쉬면서 땀을 내고, 영양보충만으로 쉽게 떨어진다. 초기 감기 땀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더라도 방으로 오면 온도에 의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추워하게 되는데 이때 감기가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인체에 잠복하게 된다. 그래서 초기 감기 땀 따뜻한 물로 손발과 얼굴만 닦는 것이 좋다. 그 다음 휴식이 중요하다. 아픈 후에 학교를 쉬게 할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음식이다. 음식에 체하게 되면 열이 더 많이 오르게 된다. 감기에 걸리면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져서 쉽게 체할 수 있는데, 소화력이 떨어지면 쉽게 고열로 진행되거나 감기 기운이 몸속으로 잠복하게 된

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죽이나 미음, 누룽지 같은 유동식을 먹는 것이 좋다. 혹 편도가 부었다고 해서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감기 땀 특별히 찬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인체는 심장에서부터 맑은 피가 전신으로 고루 퍼져야 건강인데 만약 피부와 손발 쪽으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면 가슴과 머리쪽으로 피가 더 많이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 두통 및 경기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손발의 열로 예후를 판단하면 된다. 아이들이 감기가 와서 열이 나더라도 손발이 따뜻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39도가 되었어도 손발이 따뜻하면 그냥 재우고, 하루 정도 스스로 앓고 이겨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를 해서 말초순환이 잘 되게 하고, 배마사지를 통해 소화기가 편해지게 하고, 척추부분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마사지를 하여 뇌로 혈액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면 경기로 진행되지 않고 조만간 감기가 낫게 된다.

두 손 제주풍물 뜨랑 기러보게

영구춘화 (瀛丘春花)



고재만 작 (캔트지에 라이너펜과 수채, 32X23cm)

고재만 화가, 미술교육가
한국미술협회제주지회원
그린샌드아트회 회장
(사)제주어 보전회 회원

방선문은 영주십경(瀛洲十景) 가운데 하나인 영구춘화(瀛丘春花)의 장소로 알려져 있는 경승지로서, '영구'는 방선문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방선문에는 이곳에서 목욕하던 선녀들을 몰래 훑쳐보다가 들킨 선비가 옥황상제에게 끌려가 그 별로 흰 사슴이 되어 백록담을 지키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왼쪽의 그림을 보고, 아래 그림에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우리의 창의적 솜씨를 발휘하면서, 제주의 맛을 잠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도구와 재료 :
펜, 붓, 색연필, 파스텔, 크레파스, 크레용, 수채물감, 아크릴갈라, 연필 등 사용 가능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제주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원고,
의회에 바라는 도민의 간절한 소망 등을 담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클릭뉴스에 게재됩니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
메일 : redlight17@korea.kr
전화 : 064-741-2285 (클릭뉴스 담당자)

침략과 방어
‘600년의 흔적’

환해장성

글 / 강홍균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장

제주섬과 바다. 그 경계에는 침입과 방어의 역사가 있다. 섬사람에게 바다는 외부침입의 통로였다. 보급자리를 빼앗고 수탈해가는 외부인은 바다를 건너서 왔다. 섬사람은 그래서 바다를 빙 둘러가며 돌담성을 쌓았다. 바다로부터 섬을 지켜내기 위한 성.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쌓아진 이 성은 지금 제주 해안가 곳곳마다 반쯤 무너지고 훼손된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름하여 환해장성(環海長城). 섬을 둘러싸고 있는 긴 성벽이란 뜻이다.

옛 문헌은 환해장성을 중국의 만리장성에 빗대고 있다. 최근 들어 관광안내 책자도 제주의 만리장성으로 환해장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별 볼품없는 환해장성을 찾는 관광객은 극히 드물다. 제주사람들조차 환해장성의 존재에 무관심하다. 환해장성은 수백년의 세월을 그래왔듯이 무심한 갈매기만 벗삼아 오늘도 제주바다를 지키고 있다.

환해장성이 얼마나 길었는지 정확한 실태는 없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제주 바닷가를 따라 둘러 쌓았는데, 둘레가

300여리다”라고 적고 있다. 300여리는 120km다. 제주도 둘레가 254km인 만큼 섬 둘레의 절반 정도에 성을 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 삼별초의 난 계기 축성시작

환해장성의 축성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여행이 필요하다. 고려시대로 떠나보자. 삼별초가 진도에 머무르고 있던 고려 원종 11년(1270), 고려 정부는 삼별초의 제주 진입을 막기 위해 고려림 장군을 제주에 보냈다. 그는 삼별초의 제주도 침입에 대비해 도민을 동원해 해안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 성이 환해장성의 시작이다.

그러나 삼별초는 관군을 몰아내고 제주에 들어왔다. 삼별초 역시 고려 정부군과 몽골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을 쌓아나갔다. 계속된 해안가 성 쌓기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왜구의 침탈을 막기 위해 바닷가를 따라가며 성을 쌓고 보수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무너지면 쌓고, 또다시 무너지면 쌓아올리는 일이 대를 이었다. 일부 기록은 서양세력이 몰려오던 개항기



에도 환해장성을 수리하며 쌓았다고 한다. 장장 600년에 걸쳐 이어진 대역사다. 길고 길었던 환해장성은 이렇게 두 왕조에 걸쳐 제주도민의 피땀을 먹고 자라났다.

환해장성은 대부분 제주 바닷가에 흔한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 주변에 널린 현무암을 엇갈려가며 만든 허튼층 쌓기 방식이다. 굴곡진 지표면을 잔돌로 메우고 난 뒤 기단석을 놓고 그 위에 담을 쌓아올렸다. 바닷가는 비탈 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안에 성을 쌓으면 성안이 자연스럽게 성밖보다 높아진다. 방어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바다 쪽에서 보면 바다-암반-환해장성-농토나 황무지 순서가 된다. 성의 높이는 2~4m에 이른다.

강제노역 동원 지역민 고통 스며

환해장성은 슬프디 슬픈 제주 역사를 대변한다. 환해장성 축성의 원인이 됐던 삼별초나, 그 삼별초를 막기 위해 파견됐던 관군이 나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외부세력이다. 한번은 관군을 위해, 한번은 삼별초를 위해 성쌓기에 강제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학자 강창언씨는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에서 “축성을 위해 하루에 도민 6,000명 내외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당시 성인이라면 거의 매일같이 동원돼 돌을 나르고 담을 쌓았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제주 바닷가 10여곳에 천덕꾸러기처럼 서 있는 환해장성. 그 속에 스민 수백년의 아픔을 누가 알까. 제주대 김동전 교수는 “환해장성은 기본적으로 군사 방어시설”이라며 “외부세력

에 맞서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조상들의 고된 노동과 역사의 흔적을 말해주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돌문화의 진수’불구 훼손 심각

제주도는 돌의 섬이다. 한라산부터 해안자락에 이르기까지 지천으로 돌이 널려 있다. 환해장성은 돌을 모아 쌓은 돌문화의 정수다. 가위 해안가의 설치미술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환해장성은 남제주군 온평리 2,120m를 비롯 제주시 화북동, 북제주군 애월·북촌 등 10여곳에 불과하다. 이곳을 전부 모아봐야 5km에 그친다. 120km의 장성이, 제주 섬의 울타리가 사라졌다. 1960년대 개발바람이 가장 큰 파괴원인이다. 특히 해안도로 개설은 ‘환해장성 없애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해안도로 총길이는 154km에 이른다. 154km의 해안도로가 뚫리면서 115km의 환해장성이 무너진 셈이다.

제주도는 98년에야 환해장성을 제주도기념물 제49호로 지정했다. 뒷북을 쳐도 너무 늦게 쳤다. 제주도는 “각종 도시개발로 훼손되어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며 ‘2001~2015년 보수·정비기본계획’을 세워 복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원형에 충실하지 않은 복원은 잘 다듬은 자연석을 매끄럽게 쌓아놓는 데 그치고 있다. 제주 전통방식으로 쌓은 원래 환해장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복원이 또다른 파괴로 이어지는 현장이다.

돌 하나하나에 제주의 역사가 스며 있는 환해장성. 그 성이 지금 많이 아프다.

*본 기고는 경향신문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환해장성

그 목욕탕은 지금 문화의 골뚝을 때고 있나요

글 / 진선희 한라일보 교육문화체육부장

**목욕탕 골뚝은
원도심 사람들의
일상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 유산이다.**

2014년의 일이다.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말이 전국적으로 막 피어오르던 시절, '제주 원도심, 이야기의 발견'이란 이름으로 1년 가까이 현장 취재를 벌였다. 그때 '제주 성안'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 도시재생에 길잡이가 될 만한 사례를 찾아 대구, 군산의 골목길을 누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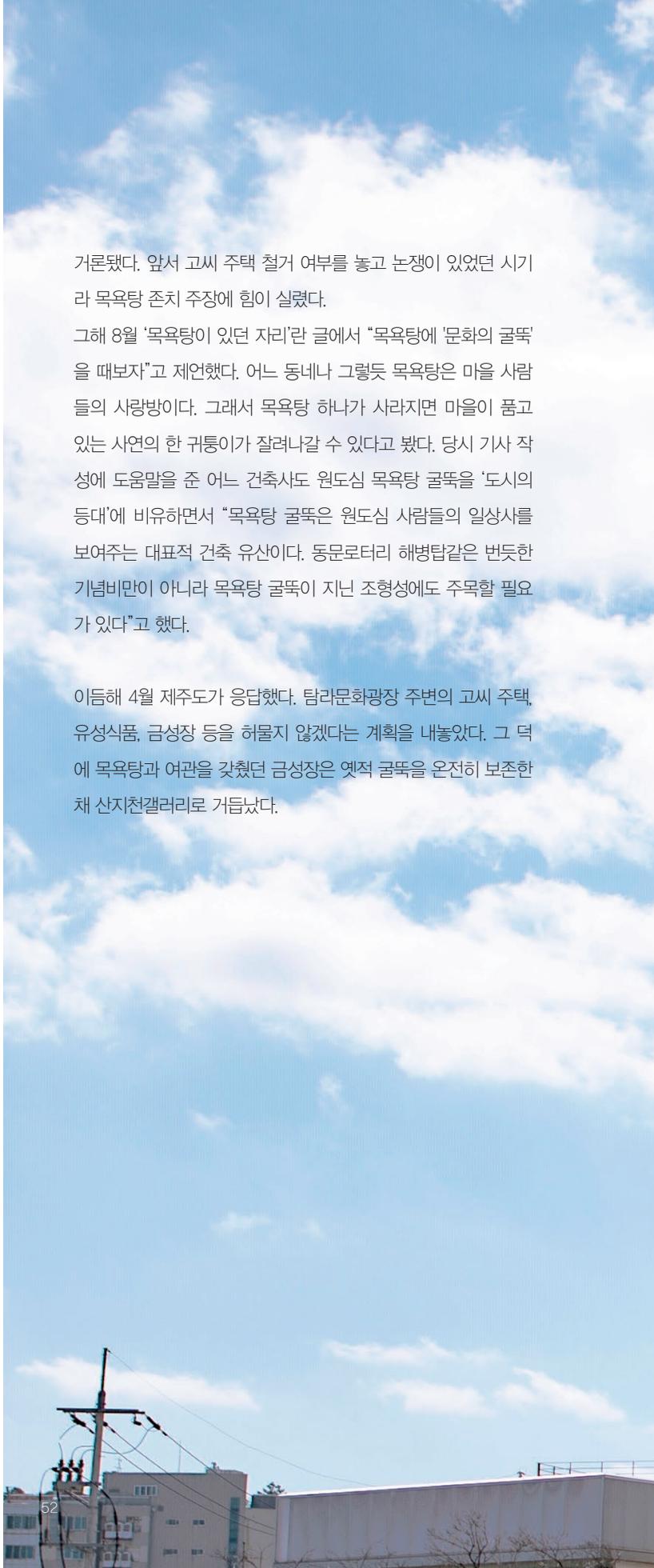
그 이야기 중에 공중목욕탕이 있었다. 제주도가 842억원을 들여 만든다는 산지천 일대 4만5845㎡ 규모 탐라문화광장 부지에 있던 곳이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으로 산지천변 건물이 경쟁하듯 헐리고 있던 때에 보상 문제로 철거 작업이 늦춰진 목욕탕이었다.

탐라문화광장이 도심 공동화를 막고 도시를 재생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지만 제주도가 정작 공간의 기억을 안은 건물을 차례차례 부순다며 일각의 반발이 컸다. 멸실 직전에 몰린 목욕탕의 희생이 자연스레

거론됐다. 앞서 고씨 주택 철거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던 시그라 목욕탕 존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해 8월 '목욕탕이 있던 자리'란 글에서 "목욕탕에 '문화의 골뚝'을 때보자"고 제안했다. 어느 동네나 그렇듯 목욕탕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다. 그래서 목욕탕 하나가 사라지면 마을이 품고 있는 사연의 한 귀퉁이가 잘려나갈 수 있다고 봤다. 당시 기사 작성에 도움말을 준 어느 건축사도 원도심 목욕탕 골뚝을 '도시의 등대'에 비유하면서 "목욕탕 골뚝은 원도심 사람들의 일상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 유산이다. 동문로터리 해병탑같은 번듯한 기념비만이 아니라 목욕탕 골뚝이 지닌 조형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듬해 4월 제주도가 응답했다. 탐라문화광장 주변의 고씨 주택, 유성식품, 금성장 등을 허물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 덕에 목욕탕과 여관을 갖췄던 금성장은 옛적 골뚝을 온전히 보존한 채 산지천갤러리로 거듭났다.



근래 제주 기획자들이 휴업중인 제주시 남성마을 반석탕을 활용한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공중목욕탕 이야기는 오래됐다. 20년 전인 1999년 부산시 광안2동에 태어난 '대안공간 섬'이 있었다. 옛 공중목욕탕에 들어선 이곳은 2002년 '대안공간 반디'로 재개관해 2011년까지 운영됐다. 반디는 신진 작가 발굴과 지원, 지역 미술의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해당 건물이 팔리고 다른 전시장을 확보할 비용을 구하지 못해 끝내 문을 닫았다.

그런 점에서 산지천갤러리는 제주도가 매입한 건물이라 쫓겨날 위험은 없지만 지자체의 관여가 공간의 경쟁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때론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하게 한다. 2017년 12월 문을 연 산지천갤러리의 오늘을 들여다보면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제주문예재단이 위탁 운영에 나서며 제주출신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수남의 유품 등을 바탕으로 사진 전문 공간으로 운영 방향

을 정했지만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예산, 인력 어느 것 하나 개관 초기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여건이 안되었다. 개관전을 빼면 땀질식 전시로 연명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문턱을 낮추라"는 주변의 주문은 지당해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공간의 성격까지 바뀌어야 하는지는 고민해볼 대목이다. 산지천갤러리를 기반으로 사진 분야를 집중해 보여줄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제주 사진가들의 요구도 있거니와 사진 인구가 적지 않다는 걸 고려하면 공간의 대중성을 확보할 방법은 가까운 곳에 있지 모른다.

덧붙여, 제주문예재단은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간사업부를 없애는 대신 산지천갤러리를 포함 위탁 운영 공간을 각각 다른 팀에 맡겼다. 그것이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길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산지천갤러리



빨소라 구이

제주 맛 기행

제주의 자연
만큼이나
보물 같은
제주의 음식들

제목이 '제주 맛 기행'이라 제주의 맛집에 관한 정보를 기대하고 이 페이지를 여셨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나아말로 제주의 정통 맛집들이 궁금하다. 이 글은 그래서 썼다.

지난해 여름 홍콩에 들른 적이 있다. 싱가포르에 갔다가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 아홉 시간 정도 경유하게 된 것이다. 공항에만 있 기에는 제법 긴 시간이라 AEL을 타고 구룡역으로 향했다. 최대 변화가인 침사추이에 들러 배우 주윤발이 단골이라는 50년 된 밀크티 전문점 란퐁유엔에서 브런치를 한 후, 지하철을 타고 몽 곡으로 이동해 짹짹 시장이라 불리는 레이디스마켓을 한 바퀴 휘 둘러보면 얼추 시간이 맞을 것 같았다.

그러나 때는 6월 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아스팔트에서는 하 안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열 좀 식혀보겠다고 아이스크 림을 사면 돌아서는 순간 곤죽이 돼 흘렀고, 그러고도 채 몇 걸음 못가 아이스크림이 당겼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스타벅스로 피 서해 빈둥빈둥. 더위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자유분방한 흡연 문화

글 / 김민정 여행 작가

탓에 길을 걷다가 별안간에 담배 연기를 연거푸 마시다 보니 머 리도 멍해져 쉬이 필요했다. 그리고 보니 3년 전에도 똑같았다. 마카오 여행을 하는 동안 양복 페리를 이용해 만나질 홍콩에 있었다. 그때는 금융 중심지로 꼽 히는 센트럴 지역에도 갔었는데 높은 빌딩들이 만들어 낸 화려한 마천루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 사이로 뿌연 대기였다. 편도 4차선 도로엔 차들로 가득했고 공원이나 쇼핑몰 앞에서는 누구랄 것 없 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두 번의 홍콩. 나는 생각했다.

홍콩은 이걸로 충분해! (하필 가는 날이 뿌연 날이었을 지도 모를 일. 그렇다면 궁합이 안 맞는 걸로 치자며)

그런데 웬걸. 뜻하지 않게 마음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홍콩에 서 시작된 강렬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질 즈음이었다. 거 실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다 한 프로그램에 시선이 꽂혔다. S본부 <미운 우리 새끼>였다. 방송인 이상민과 간호섭 교수가 홍콩에서 초저가 밤도깨비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마사지를 받고, 해돋이를 보는 여정은 그다지 새롭지 않았다. 나의 흥미를 끈 건 '홍콩 조식 맛집 투어'였다.

현지 가이드와 함께 지역민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숨은 맛집들 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었다. 60년 전통의 월병집과 우리네 기 림 떡볶이와 닮은 홍콩식 라이스롤, 두부에 생강 시럽과 설탕을 뿌려 만든 두부 디저트 가게와 물냉이를 넣어 만든 북방식 손만 두 맛집이 포함됐다. 어느새 자세도 고쳐 앉은 채 나는 화면을 뚫 어져라 보고 있었다. 내 맘이 네 맘. MC인 신동엽도 진짜 가보고 싶다며 입맛을 다셨다.

홍콩에 한 번 더 가야 할까 봐.

어이없게도 '홍콩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앞에 다시 가보고 싶 은 마음이 든 것이다. 하기가 일본의 전설적인 관상가 미즈노 남 보꾸는 '식(食)은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먹는 행위 는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다. 맛은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관능적인 즐거움이다. 그러니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이것들'은 여행의 동 기가 되기에 충분한 셈이다. 애석하게도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 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고 애석하게도 대부분 그 둘 모두가 없는 인생인지라 반년째 항공권 사이트만 들락거리고 있지만.

제주에도 있다.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말이다. 섬이라 는 특성상 다른 지역과 도드라지게 구분된 식문화가 있다. 개인 그릇을 낼 겨를이 없어 물질을 마치자마자 낭푼에 밥을 푸고 가 족들 손가락을 꽃아 상에 낸 해녀들의 낭푼 밥상이라든지, 봉평 이 아닌 제주가 메밀 생산 1번지여서 빙떡 같은 간식이 발달했다 든지, 고추 농사가 잘되지 않아 된장 베이스의 생선국과 물회가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들. 제주의 자연만큼이나 보물 같은 제주의 음식들이다.

나는 오직 맛을 위해 제주를 찾는 사람들을 안다. 제주에서만 먹 을 수 있는 음식 앞에 하루 다섯 기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과 다 먹지 못한 음식에 대한 미련으로 다음 여행을 기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주 관광 지도는 접어두더라도 제주 맛집 지도는 손에 움켜쥐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이다. 그들을 위해 현지인 가이드와 함께 하는 맛집 투어를 기획해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제주 맛 기행', '제주 맛집 투어' 같은. 나라면 당장 참가할 텐데!





그 남자와 핏코의 일기 OLDD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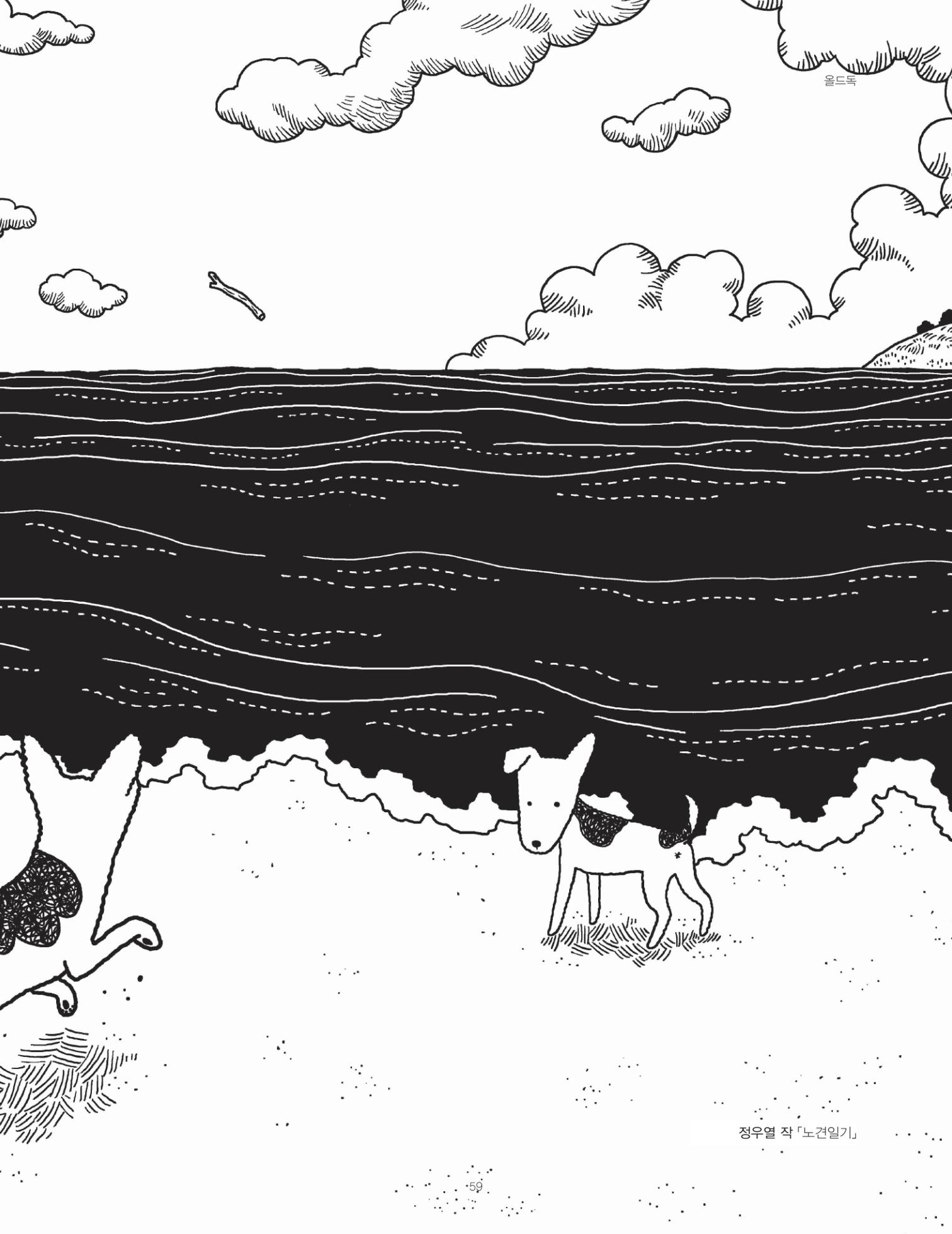


일러스트 작가 정우열은 올드독이란 애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핏코는 정우열 작가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이름이며 올해로 16세가 되었지만 지금도 그의 그림 속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캐릭터이다. 정 작가와 핏코가 등장하는 그의 작품들은 소소한 그들의 일상이 깊이 있는 문체와 따뜻한 소통력을 가진 그림들로 채워져 있어 대중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정 작가는 2012년도에 바다에서 개들과 수영을 하고 싶어서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수영과 잠수 실력이 늘어 공기통 없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프리다이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프리다이빙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6년에는 제주 향토음식을 위주로 자신이 겪은 제주의 음식 경험을 재미있는 만화 형식으로 엮은 <올드독의 맛있는 제주일기>라는 책을 발간했으며 제주의 바다와 핏코, 제주에서의 삶을 사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이다.



올드득



2019 봄 제22호
DREAM JEJU 21

변화의속도
느려도
방향만 바르다면

희망을 품은길로
봄이 깊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P| 63119 제주시 문연로 13 TEL 064.741.2222 FAX 064.741.1999